

완도군-효성그룹-한국수산자원공사 '바다숲 조성' 맞손



완도 동고리 해역 1.59km² 규모 바다숲 조성 "탄소중립·바다 생태계 보전위해 더욱 협력"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완도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한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군과 효성그룹,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는 지난 8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동고리 해역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실천' 업무협약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유인정 효성그룹 전략본부 상무, 장옥진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바다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신지면 동고리 해역에 해조류, 해초류(갈피) 등을 이식해

완도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현철 완도부군수, 유인정 효성그룹 전략본부 상무, 장옥진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 ESG 경영 실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완도군 제공).

1.59km² 규모의 복합숲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3개 기관·기업은 협약을 통해 ▲바다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기여와 블루카본 기반 확대, 생물 다양성 보전 ▲바다숲의 중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바다식목일의 대국민 인식 제고 등에 협력키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2012년부터 청산 모서, 청산 모동, 청산 소모도, 금일 충도, 금일 황제도, 청산 청계 등 6곳에 6.98km²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바다숲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과 바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해남군 재정집행 전국 최고, 4회 연속 '최우수'...84.3%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하며, 4회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해 1조 2180억원의 재정을 운용해 1조 313억원을 집행, 84.3%의 집행율을 달성했다.

특히 해남군은 전국 군단위 최대 지방재정규모를 가졌음에도 집행을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군정이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칭찬 호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6년연속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또한 높여 2023년 하반기 평가를 포함해 행안부 평가 4회 연속 최우수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부서 자체 점검 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와 이월사업 추진상황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강진 병영 돼지불고기거리 방문의 달 감사 이벤트'

15~21일까지 7일간 사은품 증정
강진군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에서 방문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의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서비스 제공 혜택과 사은품 증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병영 돼지불고기 전문음식점 6개소(배진강, 수인관, 설성식당, 병영연탄불고기, 병영 서가네, 불금불과 불고기집)에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돼지불고기 전문음식점에서 당일 결제한 증빙내역을 병영5일시장 내 진행본부에 제출하면 금액대별 사은품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은 3만 원 이상 시 예코백 랜덤 증정, 5만 원 이상 시 사은품 3종 중 택 1(텀블러, 보온보냉백, 밀프랩 용기), 10만 원 이상 시 드립백&팁블러 세트이다.
사은품 증정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혜택을 누리고 거리 일대를 홍보하기 위해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행사 개장일에 맞춰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음료 서비스는 배진강, 병영 서가네, 설성

식당, 불금불과 불고기집은 5만 원 이상 시 음료수 1병이 무료로 제공되며, 병영연탄불고기, 수인관은 금액대 상관없이 테이블당 음료수 1병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방문의 달 맛이 감사 이벤트는 사은품 증정뿐 아니라 돼지불고기 전문음식점의 참여를 확대하여 활기 넘치는 거리로 조성하고 거리 일대 홍보와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남도음식거리 중 하나로, 예로부터 병영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돼지불고기를 내오는 전통에서 시작됐으며, 질 좋은 돼지고지

에 양념을 해서 연탄불에 구워내는데 매콤한 맛이 일품이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행중에 제대로 된 불고기를 한상차림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는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 있는 강진군의 대표적인 먹거리 명소"라며 "방문의 달 행사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강진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흥겨운 분위기가, 연탄돼지불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했던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행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이달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개최되며, 7월과 8월은 휴시기 휴장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암 치료 지역사회와 함께 이겨내요"

4월 19일부터 7월까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4월 19일부터 7월까지 가정에서 요양 중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암 자조모임은 환자와 가족 간에 암 극복 사례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할 의지를 북돋기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증, 불면증 관리교육 ▲아로마테라피 ▲웃음치료교실 ▲항암 발효식초 만들기 ▲마음건강치유센터 힐링프로그램 체험(헤어스파, 항암 약죽, 온열테라피, 뜸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 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약 1/3은 완치가 가능하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암 자조모임이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과 격려가 되어 암관리와 극복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환자를 위한 암정보 교육과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여는 061) 860-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실시

본격 영농철 대비 도서지역 방문...농기계 수리와 사용 교육도 함께



진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에 나섰다.
군은 가사도, 관매도, 조도 등에 거주하며 농기계 수리에 불편함을 겪는 도서지역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수리와 사용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11일 조도 육동, 신전, 읍구마을을 대상으로 육동마을회관을 방문해 농기계 수리와 현장

교육을 시작한다.
이번 순회 수리·교육은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분무기 등 소형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 방법 등을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고 농업인의 경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품비 최대 2만원까지를 무상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수리·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과 적절한 관리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